

■ 코로나19가 바뀌놓은 2020년 한가위 풍경

대학생 '언택트'... 며느리는 상차림 해방

타지생활 대학생·취준생 "올해는 부득이 나홀로 명절"
"20년만에 상 안차렸더니... 명절증후군이 없어졌어요"

"1년 중 설과 추석 명절에만 고향을 찾았었는데, 아쉽지만 이번은 어쩔 수 없죠."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동안 고향 제주를 찾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고 대가족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 '언택트(비대면) 추석'을 보내거나 상차림도 단출해지는 등 명절 풍경도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들이 확인됐다.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연희(24·여)씨는 4년 전 대학에 입학하며 상경한 이후 명절 때 고향 제주에 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고 말했다. 평소라면 내려오라고 하셨을 부모님도 혹시나 고향을 방문하지 않았단 김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연휴 동안 서울에 머물며 끼니는 배달음식으로 해결하고, 쉬는 동안엔 집에서 영화를 보는 등 '집콕' 생활을 하며 보냈다.

서울 노량진에서 4년째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이문혁(31)씨도 상경 후 처음으로 이번 명절에 고향 제주를 찾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혼자 떨어져 지내며 공부하니 외롭고 가족들이 보고싶긴 하지만 참기로 했다"며 "다만 친척들에게 시험 준비는

잘 돼 가나, 언제까지 공부할 예정이냐 등 반갑지 않은 질문이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서 좋은 점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명절 상차림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김진아(58·여·제주시 노남동)씨는 결혼 후 올해 20년만에 차례상을 차리지 않았다. 김씨는 "명절마다 20여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는 탓에 명절을 앞두고 음식 장만에 집안 대청소에 정신이 없었지만,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명절 상차림에서 해방됐다"고 했다.

김씨는 "소위 '명절 증후군'을 20년 넘게 겪으며 명절 전엔 스트레스, 명절 후엔 몸살을 앓았는데 올해는

연휴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한 자리" 대신 "한 화면"에 모인 가족들도 있다.

김희진(44·여·제주시 노형동)씨 가족은 이번 추석 '원격 차례'를 지냈다. 과일, 고기 등을 상에 올린 뒤 차례상이 잘 보이는 위치에 태블릿 PC를 켜두고 차례가 시작되면 화면 속 가족들이 순서에 따라 절을 하는 방식이었다.

김씨는 "한 집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시끌벅적하게 음식을 나눠 먹는 풍경이 일상적인 명절이었는데, 원격 차례 방식이 생소하지만 간편해서 좋다"며 "비대면으로라도 멀리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봐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도총무과 직원이세요” 보이스피싱 주의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자 신원 확인 등 공공기관 피해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확인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직자 A씨는 “제주도 총무과 직원이세요”로 시작하며 재직 사실을 확인하는 모바일 메시지를 받았다. 이름은 물론 지인관계, 신원 확인에 대한 정보를 물으며 피해 사실을 호소하자 수상하다는 생각에 A씨는 대화를 중단하고 도 총무과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날 도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서도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받았으며 ‘공무원이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익명의 게시글이 등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등록된 지 10분 후 삭제됐지만 마치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의혹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코로나19 감염 공포와 불안을 약화한 보이스피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 메시지를 받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3일 기준 제보된 신고는 A씨의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이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도 A씨와 동일하게 특정 모바일메신저로 재직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영탁기자



가을의 전령?... 때이닝 빗꽃 지난 3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선리 한 밭나무에 빗꽃이 만개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대 최근 3년 '성비위'로 교수 4명 퇴출

최근 3년간 제주대학교 소속 교수 5명이 징계를 받아 강단을 떠났다. 이중 4명은 '성비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대학교원 성비위에 따른 징계현황' 등에 따르면 제주대는 총 4건의 성비위 행위가 발생,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11월 1일 전모(62)교수가 제자를 상대로 성희롱과 폭언, 갑질 등을 일삼다 파

면 처분을 받았으며, 이듬해 3월에는 김모(46) 부교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해임됐다. 이어 2019년 5월에는 이모(57)교수가 성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로 해임됐고, 같은해 12월에도 A교수가 성희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외에도 여제자를 노래주점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C(61)교수가 지난달 18일 파면 처분을 당했다.

제주대에서는 성비위 말고도 조교수가 제자들의 상급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올해 4월 해임 처분됐으며, 모 교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번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생활사 비밀 풀렸다

제주대연구팀 연구결과

제주대학교는 생명자원과학대학 김동순 교수 연구팀(식물자원환경전공 근충학실험실)이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의 중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사진)의 생활사 비밀을 풀어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대 연구팀에 따르면 제주지역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온도환경 조건에 따라 종령으로서 4령과 5령 경로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놀라운 환경 적응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따뜻한 환경에서는 5령 경로를 선택해 번식력이 높은 우량한 성충이 되며, 서늘한 환경에서는 4령 경로를 선택해 번식력은 떨어지지만 생활사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생활사 특성은 한라산 고도에 따른 온도환경에 따라 매개충의 번식 가능지역을 추정하는 데 유용



하게 적용할 수 있다.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동순 교수는 “솔수염하늘소에 대한 기존 기록이 모두 수정돼야 하고 이 매개충의 전 세계적인 분포가능지역 추정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의 하나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진선희기자

“제주 가정폭력 재발 우려 260가구”

가정폭력사범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4년세 폭증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이 제주지역에만 총 260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지난 2일 경찰청이 제출한 가정폭력사범 현황 자료분석 결과,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이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 2751가구이며, 이 중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이 5176가구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3715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 경기북부, 인천, 대구 순으로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은 A(위험)등급이 120가구, B(우려)등급이 140가구로 총 260가구가 관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사범은 최근 4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만7543명이었던 가정폭

력사범은 2017년 3만8000명대로 감소했지만, 2019년 5만9472명으로 늘었다. 반면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24만9366명 중 구속된 인원은 1%에 불과한 2334명이었다.

최근 5년간 피해자의 74.5%에 달하는 15만4516명이 여성이었으며, 60세 초과 노인 대상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가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 이하 세대와 60세 초과 노인 대상 가정폭력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축
CONGRATULATIONS
발탁
대한축구협회 (KFA) 국가대표

김지현
(부: 김무룡 · 모: 정숙녀)
대한축구협회 (KFA) 국가대표 (파울루 벤투 A대표팀) 발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월회
(태우·종갑·봉필·무룡·운하)

축
CONGRATULATIONS
합격
건축사

양동욱
(애월읍 상가리) (부: 양행철 · 모: 강춘선 · 배우자: 김민희)
건축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친사촌형제모임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상
해양수산부장관표창

양일석
(제주특별자치도향운노동조합 추생복지부장)
2020년 전국향운노동조합연맹 정기전국대의원대회 해양수산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향운노동조합 임직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합격
건축사

이민협
제주제일고 41회 졸업, 저드건축사사무소 소장
부: 이한일(前 제주MBC 기술국장) · 모: 한영이
배우자: 최지영(김포 푸른솔초등학교 교사)
2020년도 건축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주시세 의재공과 정무공과 문중회 회장 이봉춘의 회원일동
경주시세 의재공과 정무공과 청년회 회장 이기훈의 회원일동